

“1차 관문 넘자” 민주 통합특별시장 후보군 광폭행보

예비경선 일주일 앞 지지세 확산 총력 지역 순회일정 확대 얼굴 알리기 분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들이 예비경선을 일주일 앞두고 지지세 확산을 위해 광폭 행보에 나서면서 민심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정준호·주철현·신정훈·민형배 국회의원,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상임수석부위원장(경선 기호순) 등 7명의 후보는 지역 순회와 정책 발표, 시·도민 접촉 확대 등 조직 결집과 세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영록 전남지사는 당선 시 연임 제한이 걸린 이변이 마지막 공직 봉사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지지세 확산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일 전남 서부권(무안 김대중 광장), 광주(광주시의회), 전남 동부권(순천대 열린광장)에서 잇따라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광주특별시장의 미래 비전 구상과 권역별 공약을 밝힌 데 이어, 11일에는 광주권 농협조합장 협의회 회장단과 면담을 갖는 등 표심 다지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12일엔 광주시의회에서 1호 공약인 '반도체 풀사이클 삼각축 생태계 구축'을 발표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선 8기 행정 성과를 앞세워 통합특별시장 비전을 제시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최근 전남 시·군을 순회하며 '통합 상생도'와 정책설명회를 잇따라 열어 통합 이후 지역 발전 전략을 설명하는 등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통합 이후 확보될 2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해 30조원 규모의 대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반도체·AI·에너지 등 첨단 산업 기업 유치와 지역 산업 고도화를 통해 평균 연봉 5천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강조하고 있다.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갑)은 광역 교통망 구축과 산업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정 의원은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60분 생활권 광역 교통망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철도·도로 기반 광역 교통체계를 구축해 통합특별시장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하며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도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발걸음을 빨리하고 있다.

주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해상교통 안정화 기금 조성 추진, 전남 동부권 산업·에너지 대전환 핵심 거점 육성, 전남광주 신재생에너지공사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광주매일신문DB>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광주 서구 '일자리스테이션 상무'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청년정책 비전 설명회'를 열어 청년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설립, 전남 서부권 해상풍력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신혼부부 무상주거 제도 추진 등 맞춤형 공약 제시에 집중하고 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나주·화순)은 나주혁신도시 설계, 한진 유치,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 등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실행력'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전남광주에너지공사'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전남광주형 에너지 4대 전략, 전남 동부권 신남방 경제 전진기지 구축 비전, 전남 서남권 에너지·첨단·해양 결합 신남방 경제 거점 설립 비전, 전남광주 통합 교통체계 구축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관산)은 시·도민 접촉면을 넓히는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통합 이후 확보될 20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전남을 순회하며 '20조 시민기회 경쟁투어'를 진행 중이다.

민 의원은 AI 산업 육성과 RE100 기반 에너지 산업 전략을 중심으로 한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며 통합특별시장 산업 구조 전환과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상임수석부위원장도 지난 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선거전에 돌입하며 지지세 결집에 나서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순천 패션거리에서 동부권 정책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 동부권을 통합특별시장의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또한 동부지역본부 청사를 광주시청·전남도청 수준의 행정 거점으로 확대하고 전략 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해 동부권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제시하며 전남 동부권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변은진·양시원 기자

전남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무산

공천위, 장관호 후보 선출 찬반 투표

김해룡 "가처분 등 법적 조치" 반발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무산됐다.

12일 민주진보교육감 전남도민공천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천위는 공천위원 투표를 통해 민주진보교육감 전남 단일 후보 선출 절차를 진행했다.

김해룡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이 참여한 단일화는 후보 간 합의를 통한 경선 방식을 추진했으나, 도민 공천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 합산 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공천위는 공천위원 투표를 통해 민

주진보교육감 전남 단일 후보 선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천위원 투표는 약 1만4천명 규모의 공천위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참여로 구성된 공천위원들이 직접 민주진보교육감 전남 단일 후보 확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투표 안건은 장관호 후보를 민주진보교육감 전남도민공천위원회 단일 후보로 확정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로 진행된다.

공천위 관계자는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 선출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 온 중요한 과정"이라며 "공천위원 투표를 통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절차로 단일 후보 선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해룡 전 교육장은 "공천위가 당

초 후보들이 협약한 것과 다른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특정 후보를 위한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하고 수용하는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하는 것이 민주주의 가치 부합하느냐"며 "내부 검토를 거쳐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라 6·3 지방선거에서는 전남광주특별시장 교육감 1명을 선출한다. 현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정성훈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강숙영 전 전남도교육청 장학관, 고두갑 목포대 교수, 김해룡 전 전남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최대욱 전 한국교총 부회장 등 8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선옥 기자

김동찬 민주당 특보, 북구청장 출마 선언

"일자리 중심 자족도시 북구 만들겠다"

김동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12일 6·3 지방선거 북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구를 '일자리와 혁신'으로 모두가 머무는 자족형 균형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제6대 북구의회의 의장과 제8대



광주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행정과 노동, 기업 분야를 두루 경험한 '일자리 전문가'임을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북구 발전을 위한 8대 핵심 과업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연계한 공공기

관 유치·광주역 스타트업 밸리 조성 ▲우치공원 재개발 판다 유치와 5·18 민주묘역 일대 관광 인프라 구축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스마트 물류 거점 전환 ▲제3보병사단 이전과 도심 생태공원·첨단산업 복합개발 ▲돌봄 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북구 안심케어 공사' 설립 ▲AI 기반 스마트 재난안전망 구축 ▲주민 참여형 '성장펀드' 도입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북구의 성장이 소수 기득권이 아닌 43만 구민 모두의 폭발적인 일자리와 통장 잔고로 이어지는 진정한 체감형 경제를 완성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변은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지난해 7월과 금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령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 1 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이**
 - 적색신호이면 → 일시 정지 후 1-1 횡단보도에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 녹색신호이면 → 서행
- 2 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면 → 일시 정지
 - 보행자가 없으면 → 서행
- 3 번 신호등(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적색신호이면 → 정지
 - 녹색화살표 신호이면 → 서행

광주경찰청 | 전라남도경찰청 | 한국도로교통공단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지부